

# ‘금리 2%’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시작... 최대 3000만원

**소진공, 31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연 2.0% 고정금리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8000억원을 16일부터 신규 공급한다.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으로 지원을 위해서다.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민간 금융기관

을 이용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이다. 소진공이 직접 대출로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6등급 이하,

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인 소상공인이다. 연 2.0% 고정금리로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세금채납, 연체, 휴·폐업, 용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과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해 결격요건 확인과 평가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3회차에 나눠 실시된다.

신청 1회차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31일까지 출생제를 시행한다. 신청시간은 출생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출생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심사·약정까지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법인사

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 속에서 낮은 신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 저금리로 마련된 전용 자금”이라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설 명절 준비로 바쁜 시장** 설 명절을 일주일여 앞둔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공판장에서 상인들이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 스타벅스, 설 맞아 티·라떼 세트 등 출시

**릴렉싱 시트러스 티 등 공개**

스타벅스가 설 명절을 맞아 ‘릴렉싱 시트러스 티 세트’와 ‘스타벅스 설 선물 세트’ 등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20일 출시하는 릴렉싱 시트러스 티 세트는 작년 30-40대 여성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뉴이어 시트러스 티’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로 구성했다. 뉴이어 시트러스 티는 레몬그라스와 다양한 시트러스 과일, 유스베리 티 등이 어우러졌다.

세트는 ▲시트러스 시럽 600ml ▲간조 오렌지 ▲레몬그라스 ▲티마나 유스베리 티 ▲추천 레시피 카드 등으로 꾸렸다. 물, 티백, 토핑양 등을 조절해 자신만의 티를 만들 수 있다.

지난 12일 출시한 ‘스타벅스 홈카페라떼 세트’는 우유 거품을 제조할 수 있는 ‘사이렌 밀크 포머’와 전용 글라스컵으로 구성했다. 집에서 커피전문점과 같은 라떼 맛을 낼 수 있다.



박현숙 스타벅스 상품개발 담당은 “가족들이 집에서 손쉽게 스타벅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준비했다”며 “모두에게 환영받는 스타벅스 설 선물 세트를 통해 편안하고 즐거운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 “산지에서 식탁까지” 홈플러스, 데이터 기반 품질 ‘혁신’

**올해 ‘신선 품질 경쟁력 강화’ 4대 목표**



홈플러스는 신선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데이터 기반의 ‘품질 혁신’을 택하고, 고객 신뢰를 확보해 성장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올해 ‘신선 품질 경쟁력 강화’ 4대 목표를 ▲내부 검품 기준 상향(상품화 기준 세분화·산지 원물 점검) ▲판매 적정 기간 관리 ▲공정·포장·물류 이동 최적화(선도 저하 예방) ▲산지 다변화로 정하고 신선 주요 품목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을 거쳤다.

우선, 신선식품 트렌드를 비롯해 매출 상위 품목 빅데이터와 채널별 고객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검품 기준을 올렸다. 수요가 낮은 상품군은 고객 소비 패턴과 상품 후기를 분석해 판매 적정 기간을 재설정했다.

상품 본연의 품질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에도 집중했다. 바이어와 협력사 담당자는 산지에서, 고객은 매장에서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맛 평가’ 제도를 도입했으며, 상품성이 떨어지

는 품목을 집중 관리해 개별 편차를 줄이고 상품 균질성을 확보했다.

상품 이동 과정에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온도체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점검하고, 산지 다변화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기후 상황과 작황 부진, 물가 급등에도 대비했다.

또한 수확, 운송, 진열 등 상품 유통 단계를 재점검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자체 인증 시스템 ‘홈플러스 신선농장’, 산지를 관리하는 테크니컬 매니저, 전자 가이드라인 수립과 상품 안전 문제 대응을 담당하는 ‘상품안전센터’, 점포별 ‘신선지킴이’ 등을 운영해 산지에서 고객 식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홈플러스 온·오프라인 각 채널별 매출과 매출은 꾸준히 상승했다. 신선식품 구색을 보다 강화한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주요 점포 5개점의 지난해 10~12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2% 늘고, 과일과 축산 품목 매출은 각 68%, 69% 증가했다.

지난해 신선·간편식 전문 매장으로 리뉴얼을 완료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23개 점포 매출은 전년 대비 약 47% 신장했으며(각 점포 리뉴얼 오픈 후 4주 기준), 지난해 10~12월 ‘홈플러스 온라인’ 신선 품목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약 38% 늘었다.

김재환기자

## 해태, 면 요리 품은 ‘고향만두 면교자’ 출시



해태제과는 세계 각국의 면 요리를 만두로 빚은 ‘고향만두 면교자’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첫 제품은 중국집 대표 면요리 짬뽕과 삼선 우동이다. 면은 만두피로 건더기와 국물은 만두소로 만들었다. 만두피는 면의 식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짬뽕면과 우동면의 ‘썩는 맛’을 구현

하는데 중점을 뒀다. 알피(얇은 피 만두)보다는 두껍고 원조 고향 만두보다는 얇은 것이 특징이다. 또 색깔도 그대로 살렸다. 짬뽕만두는 천연 강황 가루를 사용한 노란 짬뽕면 색, 삼선우동 만두는 하얀 색으로 만들었다.

만두소는 건더기를 구현했다. 다채로운 야채와 국산 돼지고기, 오징어 등을 듬뿍 넣었다. 국물 맛도 만두소에 담겼다. ‘빨간 맛’ 짬뽕면교자는 청양고추의 매운맛을 냈다. 중화요리 특유의 불맛도 담겼다.

해태 관계자는 “면교자는 36년간 쌓아 온 고향만두의 원조 기술력에 새로운 맛을 접목시킨 프리미엄 교자 만두”라며 “세계의 다양한 면 요리를 담은 더 다양한 면교자 만두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승호기자



## SSG닷컴, 막바지 여행 프로모션 실시

SSG닷컴이 설 연휴를 앞두고 22일까지 막바지 여행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오사카, 괌, 방콕 등 설 연휴를 활용해 다녀올 수 있는 근거리 해외 여행지의 국제선 항공권 결제 시 최대 5만 원을 즉시 할인해주는 ‘2023 여행 새해 특가’ 이벤트를 준비했다.

행사 기간 내 국제선 주요 노선 항공권을 최대 10% 할인 판매하고, 선착순 100명에게 결제 금액별로 최대 5만 원까지 추가 할인해 준다.

또 ‘야놀라’ 국내 숙박 상품 예약 시 적용 가능한 12% 할인 쿠폰을 증정하고, 국내외 여행 상품 결제 시 최대 5만 원을 할인 혜택을 제공

한다.

‘겨울 방학 특선 해외 패키지’도 선보인다. ‘일본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3일)’, ‘베트남 나트랑 스완도르(5일)’ 특가 패키지는 물론, 설 연휴 출발 가능한 KALTOUR(한진관광)의 ‘일본 북해도+비에이(4일)’ 등 일본, 동남아 특가 패키지 상품을 선보인다.

18일 저녁 8시부터 자체 라이브커머스 채널 ‘속라이브(SSG.LIVE)’에서는 올랐던 ‘더워크래프트’의 핫딜 상품을 소개한다.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어반락 1박 숙박권을 특가로 단독 특가 8만9900원부터 선보인다.

이슬비기자

## “실속형 설 선물이 대세” 티몬, 3만원 미만 상품 기획전

**1500여개의 상품 중 40% 이상**

티몬은 3만원 미만 ‘초실속형’ 선물세트의 비중을 확대한 ‘2023 티나는 설날’ 기획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실시하는 기획전에는 1500여개의 선물 상품 중 40% 이상을 3만원 미만 상품으로 채웠다. 고가 상품의 경우에도 다양

한 할인혜택을 제공해 5만원 이하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 벨런스(10ml, 30포)의 경우 정가에서 40% 이상 할인된 4만원대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연휴에 임박해 선물을 준비하려는 막바지 명절 선물 구매 고객을 배려해 오는 18일 정오까지 주문할 경우 연휴 전 배송도 보장한다.

티몬이 설을 앞두고 선물 판매 추이를 분석한 결과 ‘초실속형’ 트렌드가 강하게 나타났다.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고객들의 설 선물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만원 미만 ‘초실속형’상품 매출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지난해 설과 비교하면 10% 포인트 상승한 수준으로, 5만원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전체의 76%에 이른다.

뉴시스